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제주 무형유산의 가치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65)

도 세계유산본부, 5월 4~5일 '제주 무형유산 대전' '재미+교육' 잡을 공연·전시·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도내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공연, 시연, 체험 등을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 축제인 '제주 무형유산 대전'이 오는 5월 4~5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제주 무형유산 대전'은 지난해까지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이란 이름으로 첫해엔 제주목 관아 일원, 지난해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회째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미래세대에게 제주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어린이날에 맞춰 펼쳐진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까지 2회째 이어지는 동안 관람객 확보 및 백화점식 큐레이션 한계, 흥보 미흡 등의 지적 속 제기된 연령별 맞춤형 참여프로그램 개

발과 매력적인 프로그램 발굴 등의 과제를 올해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재미와 교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무형유산 22개 종목(국가 지정 6, 도 지정 16)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형유산의 수호자인 전승자들을 행사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인 '제주 무형유산 답사기'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실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5월 1일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내가 만약 미래의 무형유산 전승자가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어



린이 사생대회도 열린다. 신청·접수는 현장에서 이뤄진다. 우천 시 실내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해 우편 제출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무형유산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전통놀이, 캄보디아 르카을 카은 꾸미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주 무형유산 대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

하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는 전승자들이 전통문화 수호자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우리 무형유산에 대해 인식하고 옛 제주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잘 익은 사과

김혜순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뿜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 등을 덮어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사람의 마음 뉘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을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손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삽화-배수연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울고,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도는 소리가 청각 이미지로 치환된 세월이라면 참 좋을 것이다. 세월이 그렇게 환상적이고 부드러운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주는 한 송이 차가운 구름은 머물고, 그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가인 사람의 마음 뉘새.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깝고 아린 감각을 불러내기 위해 눈물의 '처녀 엄마'와 '입양 가는 아가'가 등장한 것일까. 과도함마저 뛰어넘는 김혜순의 시적 환상에 의해, 후반부에 '노망든 할머니'가 그 모습을 드러내 아가를 입양 보낸 사람이 그 할머니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혼란 추측을 낳지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서 다행이다. 노망든 정도로 살았다면 인생을 잘 익은 사과 맛으로 음미한다 해서 잘못이랄 수도 없고, 거기까지 길은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야 하고, 내가 탄 자전거 바퀴는 사과껍질처럼 연속된 모서리를 깎으며 돈다. 시각적으로 나의 절벽을 보며. <시인>

환경의 중요성 되새기는 예술의 역할

자연환경 주제로 활동하는 시각예술단체 '모다드로' 첫 단체전... 5월 2일까지



지역 예술인들이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녹여내며 예술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자연환경'을 주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시각예술가 루 모다드로(Modadeu-Ro)의 첫 단체전 '모다드로'전이 진행 중이다.

'모다드로'는 '모두 다 같이'라는 뜻의 제주어 '모다드렁'과 길 '로(路)'자의 합성어로, '모두 다 같이 가는 길',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시에선 자연환경을 바라

보는 7명 작가(장영, 신재은, 이승민, 보니, 조경윤, 정우정, 유리)의 다채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다.

모다드로는 회화, 사진, 설치예술 등 다양한 예술형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 목적 및 기획의도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풍부한

문화적 상상력으로 전달하고, 인식의 확장과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덧붙여 '환경 문제'를 문화예술로 치유하고, 인간을 위로하며 자연을 위로하고 자연을 치유하며 인간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있다.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권하는 이번 전시는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제주문학관 창작공간 제2기 이용작가 모집

제주문학관은 올해 제2기 창작공간 이용작가를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며, 최대 8명의 작가가 이용할 수 있다.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하거나 출판사를 통한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아직 등단하지는 않았지만 작품 발표 혹은 출판 계획이 있는 예비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주문학관 누리집 교육·프로그램 신청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학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창작공간(문학관 3층) 이용은 무료다. 교통비·식비·체제비 등은 선정작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학관 누리집 참고. 오은지기자

축 임



강 동 화 (주)제스코마트 대표이사

BTN 불교TV 제주사장

BTN불교TV 제주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매월읍 봉성리 이 장 김성진 (재)제주시 봉성리 향우회 회장 문순영
- 매월읍 봉성리 노인회장 강행욱 어도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창주
- 매월읍 봉성리 부녀회장 박선일 봉성리향토지발간 편집위원장 양영길
- 매월읍 봉성리 청년회장 김성표

축 임

제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윤 상 욱

제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일동

축 상

대통령표창



김 태 민 (종달리 어촌계장)

2024년 제13회 수산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달초등학교 19회 동창일동